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8월 첫 거래일은 '빅테크 데이'

- 주요 지수 일제히 강세: S&P500 1.48% ↑, 다우 22번째 신고가
- 미국과 일본의 엔화 공동 개입,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화 우려 반영
- 7월 미국 제조업 PMI 55.6으로 예상 상회, 고용지수도 확장 전환

Summary

미국 증시는 8월 첫 거래일인 3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기대와 더불어 주요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32% 상승한 53,178.4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500은 1.48% 오른 7,600.49, 나스닥은 2.13% 상승한 25,913.90을 기록함. 이와 함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도 1.73% 상승함.

S&P500의 2분기 EPS 증가율 YoY +45%

S&P500의 2분기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그러나 약 19%포인트는 알파벳과 아마존이 보유한 비상장 지분의 미실현 평가이익에서 발생.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EPS 증가율은 약 26%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다만 이익 증가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빅테크의 '기타 수익(Other Income)'은 GAAP 순이익의 61%까지 증가. 알파벳의 기타 수익은 약 \$98B, 아마존은 약 \$53B으로 집계됨. 상당 부분이 비상장 투자자산의 가치 상승에서 발생. 또한 전체 EPS 증가분의 약 80%가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이는 지수 이익은 강하지만 시장 전체의 이익 확산은 제한적이라는 의미. 명목 EPS가 높더라도 영업현금흐름이 따라오지 않으면 밸류에이션 정당화는 어려울 수 있음. 그렇기에 빅테크의 경우 기타 수익 제외 EPS 또는 잉여현금흐름(FCF) 등을 핵심 지표로 잘 살펴봐야 함.

미국 제조업 지수 4년 만에 최고치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는 55.6으로 6월 53.8과 시장 예상 53.9를 모두 상회하며 2022년 5월 이후 최고 및 7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함. 주요 세부항목들이 개선세를 보인 가운데, 고용지수(52.8)가 확장 구간에 진입한 것은 2023년 9월 이후 처음. 이는 미국 경제가 고금리에도 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을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물가 측면에서는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물가지수는 71.1로 최근 5개월래 최저치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에너지, 관세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제조업 비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 반면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53.9로 3개월 최저에

머물며 ISM과 차이를 보임. S&P 조사에서는 신규주문 증가세 둔화, 고객의 높은 가격 저항과 기업 신뢰 하락이 확인됨.

AI 설비투자(CapEx) 지속과 병목

골드만삭스는 비상장 AI 기업과 미국 외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를 포함할 경우 2026년 글로벌 AI 투자 규모가 약 1조 1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내 투자만 약 5,810억 달러로 예상. 시장에서 흔히 인용하는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약 7,940억 달러보다 실제 AI 투자 총량이 약 2,000억 달러 더 클 수 있다는 의미.

이는 반도체·메모리·전력·데이터센터 투자가 단기간에 종료될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임. 실제로 DDR4 8Gb 계약가격은 7월 24달러로 연초보다 109% 상승했고, 128Gb MLC NAND 가격은 30.05달러로 연초 대비 218% 상승함. AI 서버와 HBM이 생산능력을 선점하면서 범용 메모리까지 공급 부족이 확산되고 있음.

시장조사분석기관 TrendForce는 DRAM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NAND는 신규 생산능력 투입으로 2027년 하반기부터 공급 사정이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 이는 메모리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강한 이익 레버리지로 연결될 전망. 그러나 고객사의 구매 태도는 이미 보수적으로 변하기 시작. 장기간의 가격 상승으로 조달비용이 높아지면서 일부 다운스트림 업체는 재고 축적보다 구매량 조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CapEx 규모 확대로 이어짐. 투자비가 커지는 만큼 시장의 평가 기준은 (설비투자) 성장률에서 투자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 미국 일부 주 정부는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을 철회하고 있으며, 판매세 7%를 적용할 경우 1GW급 AI 데이터센터의 건설비는 약 40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로 30억 달러 늘어날 수 있음. AI 투자에 전력·용수·세금·금융비용이 새로운 고정비로 추가되는 셈. 이는 단순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서버와 AI 칩을 평균 5년마다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향후 증설과 운영비에도 반복적으로 반영될 전망.

크래시 풋(Crash Put) 상품 증가

글로벌 레버리지 ETF 자산은 약 \$250B까지 증가. 미국에는 700개 이상의 상품이 상장돼 있으며, 6월 미국 레버리지 ETF 규모는 약 \$200B까지 늘었다가 이후 \$160B 수준으로 줄어듦. 특히 SK하이닉스·마이크론·엔비디아·테슬라처럼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핵심 기초자산. 일부 기초종목의 변동성은 나스닥의 3~5배에 달함.

글로벌 IB들은 이 상품에 스왑(Swap)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급락 위험을 Crash Put을 통해 외부 투자자에게 (위험을) 이전함. SK하이닉스 주가의 55% 수준을 행사가격으로 설정한 6개월 Crash Put의 프리미엄은 3월 3.5%에서 5월 6.5%로 상승.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2%에서 5.5%로 높아짐. 이는 연환산 14~2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은 보험을 판매하는 투자자가 상당한 꼬리위험을 떠안는 대가임.

이 구조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 위험을 줄이지는 않음. 극단적인 가격 급락 시 여러 거래상대방이 동시에 헤지하거나 마진을 요구하면 현물 및 파생상품 시장의 충격이 증폭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레버리지 ETF 규모뿐 아니라 Crash Put 가격과 스왑 거래 상대방의 집중도도 시장 위험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재개 소식에 힘입어 하락했으며, 브렌트유는 배럴 당 83.77달러, WTI는 80.34달러로 각각 5~7% 급락함. 이에 따라 에너지 업종은 부진했으나,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이끌었음. 특히 아마존은 실적 호조와 함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고,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4~6% 상승함. 한편,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 소식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완화시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했음. (다우 +1.32%, 나스닥 +2.13%, S&P500 +1.48%, 러셀2000 +1.73%)

특징종목

빅테크 데이(ex. 애플)

매그니피센트 7으로 알려진 주요 빅테크들의 주가 강세가 금일 증시 상승을 견인함. 매그니피센트 7지수는 3.6% 상승해 3월 31일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거의 한 달 만에 올해 들어 22번째 사상 최고치로 끝남. 애플을 제외한 빅테크의 시가총액은 오늘 하루에만 약 8천억 달러 증가했으며, 지난 이틀간 총 1조 1천억 달러 가량 늘어남.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사흘간 시가총액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수도 있음.

알파벳(+4.88%)은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엔비디아(+2.93%)에 이어 시총 2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아마존(+4.58%)은 사상 첫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함. 마이크로소프트(+4.93%), 메타플랫폼스(+6.02%) 등도 강세를 보임. 반면, 애플(-1.78%)은 지난 주 초 시총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약세가 지속되며 시총 3위 자리까지 내려옴. 애플의 주가 하락은 △ 실적 가이드라인 약화 및 수요 둔화 우려 △ 공급망 제약 및 부품 원가 상승 △ 경영진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차익 실현 등을 들 수 있음.

유가에 따라 엇갈린 희비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 진전 기대에 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2분기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거둔 엑슨모빌(-0.24%)과 셰브론(-1.85%) 등 에너지 기업들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 그러면서 그는 “석유회사들은 소매 가격을 낮춰야 했다”면서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버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밝힘. 한편, 유가 하락에 여행 업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함. 크루즈 운행사인 노르웨지안 크루즈(+6.64%)와 카니발(+3.34%), 유나이티드항공(+5.82%)과 델타항공(+4.75%) 등이 강세를 보임. 반면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6.97%) 실적 부진에 하락.

기타 특징주

퍼스트솔라(+10.28%)는 구겐하임의 목표가 상향 조정과 함께 규제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S&P 500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함. 보잉(+8.03%)은 737 MAX 7 기종 FAA 인증 획득과 함께 더블 업그레이드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음. 생산 일정 안정화와 함께 투자자들의 기대감 확대됨. 오라클(+9.22%)은 AI 및 빅테크 투자 심리 회복과 클라우드 인프라 및 AI 컴퓨팅 클러스터 수요 증가와 함께 알파벳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음. 알리바바(+4.13%)는 최신 모델 Qwen 3.8-Max 공개에 주가 강세. 최근 합병을 논의 중인 아스트라제네카(-6.88%)와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킵(+0.24%)은 상반된 주가 흐름을 보임. 두 회사의 합병 후 기업가치는 약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재무부 QRA 발표

미국 재무부는 중간선거 전까지 중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지 않고 단기 국채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당장의 10년물·30년물 금리 상승을 제한하려는 정책으로 해석됨. 그러나 단기 국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험으로 미래로 이연. 현재 발행 구조가 2027회계연도(2026.10~2027.9)까지 유지될 경우 단기 국채가 전체 미상환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상승해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음.

JP모건은 2027~2030년 미국 재무부의 누적 자금조달 부족액을 약 3조 7,000억 달러로 추정. 연간 재정적자도 약 2조달러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단기적으로 8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펀드가 T-Bill 수요를 지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채 발행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면, 향후 장기금리의 공급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음.

미일 엔화 가치 방어 공동 개입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동시 개입한 것은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조치임. 양국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엔을 164엔 부근에서 156.8엔까지 낮춤. 엔화는 지난 주 약 5% 상승했고, 개입 규모는 50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미·일 금리차가 유지되는 한 엔화의 지속적인 강세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함. 2024년 일본의 단독 개입 당시 엔화는 161엔에서 141엔으로 약 12% 상승했지만, 이번 개입 후 환율을 5월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침.

미국이 개입에 참여한 배경에는 일본의 미 국채 매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 일본은 약 1조 1,0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한 최대 해외 보유국 중 하나. 일본이 외환개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매도하면 이미 높은 미국 장기금리에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올해 미국 10년물 금리는 약 57bp 상승함. 미국은 FIMA 레포 도구 등을 활용해 일본이

미 국채를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유인책을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됨.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69%로 하락함. 이는 WTI 원유가격이 하루 동안 5.41% 하락한 80.09달러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기 때문임. 유럽과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각각 3.15%, 4.96%로 내림세를 보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인덱스가 99.95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으나, 일본 엔화는 달러당 157.03엔으로 0.26% 절상됨. 유로도 달러당 1.15로 유지되며 강세를 보임. 상품시장에서는 WTI 외에도 브렌트유가 4.76% 하락한 83.75달러를 기록함. 금은 0.22% 상승한 온스당 4,051.87달러, 은은 0.72% 오른 58.04달러를 나타냄. 구리는 공급 차질 우려로 1.36% 상승한 6.52달러를 기록했으나, 밀은 러시아의 수출 대체 경로 확보 소식에 1.92% 하락한 651.50달러를 기록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